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다.

- 칭기즈칸 -

PART 2

세무사 합격 수험전략

1. 세무사 1차 시험

- 회계학개론
- 세법학개론
- 재정학
- 상법(회사법)/민법/형사소송법

2. 세무사 2차 시험

- 회계학 1부
- 회계학 2부
- 세법학 1부
- 세법학 2부

1 세무사 1차 시험

세무사 1차 시험은 회계학(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 재정학, 상법(회사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학(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은 전형범위가 넓고 난이도가 높은 과목인 관계로 많은 절대 공부시간을 필요로 하며 고득점을 맞기에 매우 힘든 과목인데 반해 재정학과 상법은 상대적으로 단기간내에 일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과목으로 분류합니다.

세무사 1차 시험과목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
3. 회계학개론
4.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 1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상대평가가 아닌 전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가 가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수험여건과 공부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세무사 시험은 그 특성상 전과목을 고르게 득점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수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학(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과 세법은 1차 시험뿐만이 아니라 2차 시험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단기간내에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닌 만큼 1차 시험까지 2~3회독의 꾸준한 공부량과 시간이 필요하며, 2차 시험을 염두에 두어 주관식 연습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연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1차 시험에서는 투입대비 점수가 쉽게 나오지 않는 과목의 특성상 시험이 다가올수록 어려운 부분을 Skip하여 공부범위를 줄이고 100점 만점이 아닌 본인의 목표점수(Ex. 60점)에 맞는 시간할애가 필요합니다.

재정학과 상법은 세무사 1차 시험의 합격을 위하여 반드시 고득점을 맞아야 하는 전략과목입니다. 상반기에 회계학과 세법 중심으로 공부하였다면 하반기에는 재정학, 상법에 상당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일정점수 이상(Ex. 80점)을 꼭 획득하여야 회계학과 세법에서의 점수부담을 덜면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1. 회계학개론(재무회계)

▶ 출제경향

재무회계 1차시험 출제경향(IFRS 기준으로 출제 이후)

구 분	분 류	2013	2014	2015	2016	합계	비율
중급회계	개념체계, 재무제표 표시	3	4	3	1	11	11%
	수익, 건설계약	3	1	2	1	7	7%
	재고자산	3	2	2	2	9	9%
	유무형자산, 차입원가	6	6	8	5	25	25%
	금융부채, 총당부채, 자본	2	4	3	2	11	11%
	금융자산	1	1	1	4	7	7%
	특수회계	3	3	3	6	15	15%
	주당이익, 현금흐름표	1	2	2	2	4	7%
고급회계	기타	2	-	1	1	4	4%
	사업결합, 연결회계 등	1	2	-	1	4	4%
합 계		25	25	25	25	100	100%

개념체계 등 이론부분,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현금흐름표 등은 IFRS로 바뀐 이후에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 유형자산 중 재평가 모형, 공정가치 평가 등 IFRS로 출제된 후에 새로이 강조되는 분야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회계(종업원급여, 주식기준보상, 법인세회계 등)와 고급회계는 공부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제비중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개정된 내용은 반복하여 출제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출제경향을 미리 파악하여 수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수험전략

회계학개론 40문제 중 25문제가 출제되는 재무회계는 세무사 1차, 2차 시험에 모두 출제되며, 또한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행 학습이 되어야 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과목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투입해도 50~60점 이상의 고득점이 어려우며, 반면에 조금만 소홀히 해도 과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당한 까다로운 과목입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험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

세법 등 다른 일부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무회계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거의 출제되지 않거나 출제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풀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과감히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재직자 수험생들과 같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험생은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풀게 될 문제들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이러한 부분은 학원수강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중 고급회계 부분은 연결재무제표, 파생상품 등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어려운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시험에서는 매년 2~3문제 정도로 공부량에 비해 출제비중이 낮기 때문에, 과감하게 넘어가거나 객관식 강의 때 서술형 문제 위주로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둘째, 예습보다 복습

예습보다는 복습에 중점을 두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 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습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회계 복습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눈으로만 공부를 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반복 수강하는 방식은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계산문제의 특성상,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는 반드시 손으로 직접 풀어보아야 이해를 뛰어넘어 실전에서의 응용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은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과 강사가 풀어준 문제들을 위주로 반복하여 풀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객관식 문제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단순히 빨리 푸는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서를 3회독 이상하여 충분한 학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서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을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중간에 책을 바꾸거나, 이책 저책 여러 권을 보는 것도 수험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지름길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계원리의 중요성

재무회계는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중급회계, 고급회계의 순서로 학습하게 됩니다.

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수험생의 경우, 회계원리를 등한시하고 바로 중급회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원리를 먼저 충분히 학습한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하여 결과적으로는 몇 배 빨리 재무회계를 극복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학습계획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강의주안점

세무사와 같이 학습량이 방대하고 1년 이상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자격증 시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최대한 짧은 시간을 투자”하여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원수강은 필수적이며, 재무회계 강의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핵심위주의 강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회계 1차 시험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즉 재무회계는 1차 시험에서 총 25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를 재무회계 주제별로 평균해 보면 주제별로는 1문제가 채 되지 않습니다. 각 주제 내에서도 지엽적인 부분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개념체계, 재고자산, 유형자산, 현금흐름표 등 전통적으로 시험에 빈출되는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 공정가치 평가, 금융자산 등 IFRS가 도입된 후에 중요성이 강조되어 빈출되는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핵심 위주로 정리하여 강의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시험에 나올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환경의 변화, 미국회계기준과의 정합화 작업 등으로 IFRS가 지금도 제·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개정 내용들은 출제될 가능성은 크지만 어렵지 않게 출제되기 때문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놓치지 않고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합니다.

둘째, 효과적인 공부방법의 제시

재무회계 1차는 정확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1문제당 1~2분 내에 풀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지문을 하나

하나 다 읽고 유형을 파악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빈출되는 문제들은 미리 그 유형을 파악하여 반복학습을 완료해 놓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보면 즉시 풀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 적합한 풀이방법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동일한 문제라도 다양한 풀이방법(예: 분개, 그림, 산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1차 시험에 적합한 풀이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 부족 시 찍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진행시 해당 주제별로 출제가능한 문제의 유형과 가장 적합한 풀이 방법은 무엇인지를 그때 그때 제시하여, 수험생들이 이를 터득하는데 소요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이해 위주의 강의

재무회계를 암기 위주로 공부하게 된다면, 수험생활이 길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할지의 여부 자체가 불확실해 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출문제의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도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여 상황별로 응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단순한 암기가 좀 더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넷째,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

본원의 세무사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① 입문과정 ② 기본이론과정 ③ 정규(종합반) 과정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단계별 학습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조금씩 깊이를 더해 가면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계나 세법을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수험생들도 큰 어려움 없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만 중간에 포기 없이 따라온다 해도 벌써 3회독을 한 것이 되어 기본적인 체계가 자연스럽게 정립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빨리 푸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습득한다면, 1차 시험에서 목표로 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2. 회계학개론(원가관리회계)

▶ 출제경향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회계학개론 40문제 중 평균 15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으며, 과거 8년간의 문제출제경향을 보면 전범위에 걸쳐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용	출제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가관리회계일반	1		1	1	1	1		1
보조부문/개별원가계산	2	1	1	1	2	2		3
종합원가계산	1	1	1	1	2	1	2	1
결합원가계산	1	1	1	1	1	1	1	1
(초)변동원가계산		1	1	2	1	1	1	1
활동기준원가계산	1		2	1		1	1	
원가추정/학습곡선	1	1		1		1	1	
CVP분석	4	2	1	1	2	1	1	4
관련원가분석	1	2	2	2	2	1	2	2
자본예산							1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1						
종합예산	1	1	1	1	1	1	1	1
표준원가계산	1	1		1	1	1	2	
판매부문/투자중심점 성과평가		1	1	1	1	1	1	
대체가격결정	1					1		1
전략적 원가관리		2	3	1	1	1	1	
계	15	15	15	15	15	15	15	15

▶ 수험전략

1차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의 배점은 37.5점 정도입니다. 세법, 상법, 재정학 등 다른 과목에 비하면 절대 배점이 낮은 과목이지만 공부기간이 길지 않은 수험생들이 재무회계에서 고득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계학에서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 혹은 회계학에서 평균을 너무 깎아먹지 않기 위해서는 원가관리회계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처음 회계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재무회계보다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는 과목일 수 있으나 1차 시험에서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맞추겠다는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타과목과 다르게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는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일 뿐이고, 반복숙달과 연습이 따르면 왜려 재무회계, 세법보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과목일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출제된다 하더라도 논리와 계산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다른 과목들에 비해 암기에 의존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재무회계나 세법과 달리 원가관리회계는 철저하게 이론을 학습하는 분야이므로 계산 문제를 이해하는 위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시험은 주로 케이스 위주의 계산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신후에 반드시 계산문제에 대한 적응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셔도 사례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문제풀이에 대한 적응까지 끝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원가관리회계는 다른 주요 과목들과 달리 매년 개정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과거의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같은 내용이지만 적당히 변형 또는 응용되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공부보다 이해하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최근 몇 개년도의 기출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풀 수 있을만한 실력을 갖췄다고 하면 아마 1차 시험에서 다른 수험생에 뒤지는 점수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 강의주안점

원가관리회계의 강의방법은 철저히 수험전략에 맞추어 짜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사례를 통한 각 항목의 철저한 설명으로 이해를 극대화하며, 필수예제 및 다양한 연습문제풀이로 이해된 내용을 (계산)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기출문제분석을 통한 다양한 사례연습으로 응용력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절대 문제풀이 능력으로의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실무사례를 통한 이해와 반복적인 연습을 위한 통일된 풀이방법의 제시 및 이의 반복을 통해 원가관리회계의 고득점을 위한 최선의 강의를 이루어 질 것입니다.

3. 세 법

▶ 출제경향

구분	분 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비율
법인세법	총칙			1	1		1	3	5%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				1	1	3	5%
	익금 및 손금 종합	3	1	3	3		2	12	20%
	접대비 / 기부금	1		1		2		4	7%
	지급이자					1		1	2%
	손익의 귀속시기		2			1	1	4	7%
	자산 부채의 평가		2	1	2	1		6	10%
	감가상각비	2	1	2	1	1	1	8	14%
	퇴종퇴연충	2						2	3%
	대손충당금		1			1		2	3%
	기타준비금		1					1	2%
	부당행위계산부인	1	1		1	1		4	7%
	과표 및 세액계산		1	1	1	1	1	5	8%
	합병 및 분할				1			1	2%
	신고납부절차						2	2	3%
	기타법인세						1	1	2%
	합계	10	10	9	10	10	10	59	100%

법인세법의 출제경향은 익금과 손금의 기본 이론과 감가상각비, 퇴충, 부당행위, 과표세액계산에서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익금과 손금, 부당행위계산부인 기본 내용은 자주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중요성 측면에서 손익귀속, 퇴충, 대손충당금, 기타 준비금은 격년 혹은 3년에 한번 정도 출제되어 중간 정도이며, 합병과 분할, 신고납부 절차는 가장 낮은 정도의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신고납부 절차규정에 대한 문제가 다소 출제된 바 있습니다.

구분	분 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비율
소득세법	총칙	1	1		2	1		5	8%
	이자소득/배당소득	1	1	2		1	1	6	10%
	사업소득	1	1		1	2	1	6	10%
	근로/연금/기타소득		1	1		1	3	6	10%
	소득금액계산 및 세액계산특례	2		2		1	6	6	10%
	종합소득공제		2		1		3	3	5%
	종합소득세액계산		1	2	2	2	7	7	12%
	퇴직소득세		1			1	2	3	3%
	양도소득세	3	2	1	2	1	11	11	19%
	절차규정/기타	2		1	2		7	6	12%
	합계	10	10	9	10	10	10	59	100%

소득세는 골고루 출제가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융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세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세 관련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구분	분 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비율
부가가치세법	총칙	2		1		1		4	8%
	과세거래	1	2	1	2	2	2	10	20%
	영세율과 면세	1	1	1	2	1	1	7	14%
	과세표준/매출세액	2	2	2	1	1	2	10	20%
	매입세액	1		1		2	2	6	12%
	과세면세 겸영사업자	1			2			3	6%
	세금계산서/절차규정		2	2	1		1	6	12%
	간이과세		1	1		1		3	6%
	합계	8	8	9	8	8	8	49	100%

부가가치세법도 범위가 좁아 골고루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 중 과세거래와 세금계산서 부분이 가장 높은 출제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차이는 출제경향에서의 차이보다 문제 풀이의 난이도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에서 계산 문제의 난이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이 되므로 시험장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완벽한 풀이가 가능해야 합니다.

구분	분 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비율
국 세 기 본 법	총칙	1		1	1		4	3	14%
	국세부와와 세법적용	1	1		1	1	4	4	14%
	납세의무	1	1		1	2	5	6	18%
	납세의무확장제도		1				2	2	7%
	국세우선권과 납세담보	1		1			2	2	7%
	과세			1	2		4	4	14%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			2	1	7%
	국세불복절차	1				1	2	3	7%
	납세자의 권리		1			1	1	3	11%
	합계	5	4	4	5	5	5	28	100%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의무와 총칙부분은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불복절차와 납세자의 권리 부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계
법인세법	10	10	9	10	10	10	59
소득세법	10	10	9	10	10	10	58
부가가치세법	8	8	9	8	8	8	50
국세기본법	5	4	4	5	5	5	27
국세징수법	4	4	4	3	3	3	22
국조법	2	2	3	2	2	2	13
조세범처벌법	1	2	2	2	2	2	11
계	40	40	40	40	40	40	240

출제경향으로 판단컨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조법, 조세범처벌법에서 약 30%정도 출제되므로, 이론문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면 과락은 반드시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50% 정도가 이론문제입니다. 결국 40문제 중에서 25~28문제 내외가 계산형 문제가 아니라 이론형 문제이므로 계산에 자신이 없는 수험생이라도 이론문제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당연히 과락은 피할 수 있고 60점이 넘는 목표점수도 가능하므로, 혹시 계산실수가 많은 수험생이라도 세법 시험 고득점 획득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험전략

세법을 공부하기 전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재무회계 학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거래 발생에 따른 다양한 회계 분개 처리방법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회계원리와 중급회계를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세법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하 세법 시험과목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암기하기 보다는 이해하고, 눈으로 보기보다는 손으로 정리하라.

세법은 우리가 체험하는 경제현상을 반영하는 실무 학문입니다. 실제 발생한 여러 조세관련 경제적 사건과 현상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법조문에 녹아 들어간 것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현실을 지속적으로 잘 반영하기 위해 매년 법규정의 개정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조문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사회 경제현상과 그 취지를 잘 이해하면 굳이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습 보다는 복습, 복습은 반드시 문제풀이로 하면서 정리하라.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맞는 계산형 예제 문제 등을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법규정을 읽어가면서 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예제를 풀면서 주어진 상황 안에 내가 그 상황의 실제 해당 인물인 것처럼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서 답을 맞추어 가면 자연스럽게 법규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세법과목이 덜 지루하고 집중력 또한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공부 방법은 복습하면서 대부분 예제를 맞추기 위해 이론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이해하려 하거나 외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이론을 복습하면서 세법의 난해함만을 깨닫고 싫증나고 짜증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교재에 나와있는 문제의 풀이 전개과정을 숙지한 이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문제풀이를 통하여 항상 자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세법강사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선배 세무사도 누구나 실수를 하고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부단히 경험한 후 세법의 실력을 한 단계씩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강의주안점

종합반에서는 주요 3가지 세목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를 집중 공략합니다. 전체 과목에서도 이 세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이고, 기타 세법의 경우 이론형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시험 직전에 공부를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먼저 합격한 선배 세무사인 저 또한 시험 직전 기타 세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세법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순서는 부가가치세를 먼저 공부하면서 거래를 이해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어서 공부합니다. 재무회계 학습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를 먼저 공부한 후 법인세를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산문제가 출제되지 아니하지만, 이론문제 유형으로 전체의 30% 가까이 출제되므로 이 부분도 추후 객관식반 등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실무사례를 들어 이해하는 강의

세법을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실을 책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험했던 것을 이해하는 것과 경험하지 못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이해의 깊이가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경험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강사가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강의시간에 전수받으면서 실제 거래를 이해하고, 법규정을 이해하여 최대한 암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세법 강사이자 세무사로서 실제 업무에서 경험한 생생한 사례를 예로 들어 재미있으면 서도 쉽게 이해 되는 강의를 진행되도록 합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

우리 학원의 특성상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강의가 진행되므로, 강의시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세법이라는 학문자체도 방대한데다가 조문 하나 하나를 다 풀어서 이해하려 한다면 200시간을 강의하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 강의시수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시험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부분인 80%만을 집중 공략할 것입니다.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부분도 출제는 되나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자주 출제되는 80%부분의 강의 설명시간과 비교해보면 그보다 배 이상의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는 비능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시험을 대비할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10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무사 수석시험을 목표로 하는 것도 좋지만, 10년 동안 공부하여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숙지하여 1등으로 합격하는 것과 1년 6개월 동안 공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지는 않았지만, 1차 2차 모두 커트라인에서 1점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것 중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더 원하시는지요?

특히 전업수험생이 아닌 경우 가정과 일, 수험생활은 병행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며 세법강의도 그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4. 재 정 학

‘재정학은 어렵다!’

대다수 수험생들의 재정학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수험과목으로서 재정학은 단순히 어렵다는 이유가 기존에 접해보지 않은 낯설음과 생소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주변에 친한 친구나 동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한 친구나 동료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존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생소하고 낯설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생소함이 사라지고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듯 재정학에 대한 어려움은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가 되고 더 나아가 든든한 합격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정학은 철저하게 미시경제학의 기본 위에서 대부분의 이론이 전개되기 때문에 재정학을 위한 미시경제적 이론이 정립되어야만 재정학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재정학을 정복할 수 있는 첫걸음은 재정학과 친해지는 방법을 찾는 것이고, 재정학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재정학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며, 재정학에 필요한 미시경제를 철저하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 출제경향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평균적으로 공공지출이론에서 30%, 조세이론 50%, 재정학의 기타주제에서 20%가 출제되었습니다.

재정학이 예전에는 주로 단순암기식의 문제가 상당히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단순암기식 문제보다는 전반적으로 기본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주를 이루어 상대적으로 기존에 비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편 재정학의 개요	4	3	2	2	3
2편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6	7	9	9	7
3편 공공지출이론	2	2	3	3	2
계	12	12	14	14	12
4편 조세론의 기초, 전가와 귀착	9	9	7	4	7
5편 조세와 효율성, 최적과세론	5	3	4	5	2
6편 개별조세이론, 조세의 경제적효과	5	7	4	9	7
계	19	19	15	18	16
7편 재정학의 기타주제	9	9	11	8	12
계	9	9	11	8	12
합계	40	40	40	40	40

▶ 단원별 출제경향 분석

1편 재정학의 개요

사회후생극대화의 조건인 효율성을 파레토효율성이라는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공평성은 사회후생함수를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요인들을 살펴봅니다. 파레토효율성과 사회후생함수는 출제빈도가 높으므로 꼼꼼한 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2편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완전경쟁임에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는 외부성과 공공재이론은 매년 6-7문제가 출제될 정도 기출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산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미리 미리 계산문제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선호를 집약해 주는 투표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잘 파악해야 합니다.

3편 공공지출이론

정부의 예산제도와 비용-편익 분석에서도 거의 4문항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가끔 내부수익률과 같은 계산문제가 출제됩니다. 적정할인율과 관련된 내용도 숙지해야 합니다.

4편 조세론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

조세의 기초이론에서는 조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 당시의 이슈가 되는 문제들로 가끔 출제되며, 암기위주의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부분에서 암기식보다는 이해위주의 문제가 출제되므로 꼼꼼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밑의 균등희생원칙과 특히, 조세의 전가와 귀착은 조세가 부과될 때 공평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매년 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5편 조세의 초과부담 및 최적과세론

조세의 초과부담은 조세부과시 효율성과 관련된 파트로 초과부담의 정의 및 계산문제가 빈번하게 출제 됩니다. 최적과세론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만족하는 조세체계를 설계하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도 매년 5문항 정도가 출제됩니다.

6편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

개별조세이론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기출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재정학 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세의 경제적 효과 부분에서는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 위험부담행위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출제가 자주 됩니다.

7편 재정학의 기타주제

재정학의 기타주제는 크게 소득분배, 공공요금이론, 공채론, 지방재정으로 나누어지는데, 4개의 주제 모두 매년 1문제 이상씩 출제됩니다. 그중에서도 소득분배는 기출빈도가 가장 높고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재정학의 기타주제는 다른 파트에 비해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으므로 기본이론을 충실히 학습한다면 큰 어려움없이 고득점이 가능한 파트입니다.

▶ 수험전략

1. 재정학을 위한 미시경제학을 먼저 학습하자

재정학은 경제학과의 3학년 과목으로 미시경제가 선수이수된 학생에 한에서만 들을 수 있도록 교수님이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실 정도로 미시경제의 이해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재정학은 시험과목이 미시경제학을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2. 기본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자!!

재정학에 있어 기본개념에 대한 숙지는 아무리 강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제학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으로 재정학이론의 기본개념,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난이도 높은 응용문제를 풀 수가 있는 능력이 배양되고, 이는 고득점으로 연결됩니다.

3. 그래프를 최대한 활용하자!!

재정학에서 대부분의 이론은 그래프를 통해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한 내용의 이해가 주를 이루는데 그래프는 복잡한 서술형의 설명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신하기 때문에 내용전달을 쉽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석도구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그래프 분석 때문에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익숙하지 않은데서 오는 어려움일 뿐입니다. 차근차근 내용을 이해하며 그래프를 활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복습하는 학습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재정학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면지를 이용하여 반복 또 반복하며 직접 손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며 이해해봅시다.

4.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기출문제는 최근의 재정학의 출제경향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험생여러분이 습득한 지식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출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봄으로써 시험문제들을 익히고 출제경향을 파악합니다.

5. 계산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자!!

최근 기출되는 계산문제들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계산문제는 기존에 기출되는 문제들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기출된 문제들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풀어봄으로써 계산공식과 유형들을 잘 파악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수학적인 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데, 재정학에서 계산문제는 미분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미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강의주안점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정학을 암기가 아닌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또한 미시경제학적인 배경지식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재정학의 고득점을 위한 강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학에 필요한 미시경제학으로 선행학습을 합니다.

둘째, 암기가 아닌 이해위주의 쉬운 설명과 강의로 진행됩니다.

끝으로 경제학은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수험생활이라는 선택을 하였다면 여러분의 선택의 기회비용을 늘 염두에 두면서, 수험생활이 매몰비용이 되지 않고 당당한 합격으로 그 매몰비용을 회수함으로써 탐과 노력을 보상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5. 상 법

▶ 출제경향

구분 \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회사의 의의			○				○							
법인격 남용				○								○		
1인회사				○		○			○			○		
회사의 능력				○								○		
회사의 종류														○
외국회사				○									○	
각 회사 사원의 책임					○									
회사설립의 절차		○												
설립의 하자			○										○	
정관의 변경							○			○	○			
회사의 합병			○	○			○			○		○	○	○
회사의 분할									○		○	○		
조직변경					○		○		○			○		○
회사의 해산					◎		○		○	○		◎	◎	
회사의 청산			○			○	○		○			○		
회사의 계속														
휴면회사														
자본의 원칙						○						○		○
자본금감소		○	○		○	○						○		○
발기인					○				○					
설립중회사												○		
정관의 작성					○		○							
설립방법					◎	○	○			○	◎	◎	◎	○
타인명의 주식인수			○											
주금액 납입									○					
설립등기													○	
설립책임							○		○	○		○		
불성립책임												○		
주식과 주주평등				◎			◎				◎	○	○	○

구분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주주권(단독소수 포함)					◎			◎				◎		◎	
주식의 종류														○	
주식 종류	이익배당 등														
	의결권											○	○		
	상환주											○	○		
	전환주		○				○				○	○	○		
주권과 불소지						○	◎			○		○		○	
명의개서대리인										○					
명의개서													○		○
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	◎		○
주식양도		○		○		○	○		○	◎		○	◎	◎	
주식담보							○						○		
주식분할															
주식매수선택권										○	○	○		○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	○		○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					○			○		○	○		○	○	◎
주총소집							○			○	○		○	○	
의결권행사						○	◎	○	○	○	○	◎			
주총결의사항											○			◎	
영업양도															○
주총결의 하자								○					○	○	○
종류주총						○				○					
이사					○	○		○		○		○	○	◎	○
이사회										○		○			
이사회내 위원회								○				○			○
대표이사					○			○		○	○		◎	○	○
집행임원											○	○	○		○
감사						○	○						○	○	
감사위원회					○		○		○	○	○				
검사인															
이사의 의무			○												
이사의 자기거래															
유지청구권										○					○
이사의 책임			○								○		○		
업무집행지시자													○		○

구분 \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주주대표소송				○						○			○	○
신주발행				◎						○	○	○	○	○
신주인수권					○							○	○	
위법한 신주발행						○						○		
할인발행					○									
사채의 발행						○			○			○		○
사채관리회계												○		
사채권자집회												○		○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부사채														
재무제표										○	○	○		
준비금 및 자본금전입			○						○			○	○	○
이익배당						○					○	○		○
주식배당												○		○
위법배당														
이의공여금지											○			
상장특례												○		
소규모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	◎
합명회사							○		○	○		○	○	○
합자회사							○		○	○		○	○	◎
유한책임회사										○	○	○	○	◎

▶ 수험전략

1. 각 제도의 개괄파악 및 민법의 기본파악

회사법은 각각의 회사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회사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각제도의 개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사제도의 개괄 파악과 병행하여 약간의 민법 및 민사소송법 지식을 프리상법강의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두는 것은 앞으로의 세부적인 회사법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다.

2. 기출지점의 파악

회사법 각 제도의 개괄파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기출문제를 먼저 들여다보기를 권한다. 기출문제의 개괄파악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전혀

출제되지 않는 부분 또는 출제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에 필요이상의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비효율성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3. 세부적 강독 및 강의 진행

위와 같은 부분의 파악이 이루어진 후 회사법의 세부적인 논점을 파악하는 소위 집중강독 및 집중강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집중회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먼저 회사법 조문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 물론, 시중의 교과서는 대개 회사법조문이 원안 그대로 삽입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지만, 공부를 하는 본인들은 회사법조문을 원안 그대로 살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병행하여 간다면 상당히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②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적어도 교과서 내에 법조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장 만큼은 분석적으로 문장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암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하여야 한다.

③ 물론, 집중회독을 하면서도 그간의 기출문제를 수시로 들여다보며 확인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

4. 집중회독시의 문제풀이

대개의 수험생들이 문제풀이를 기본서 작업이 끝난 후에 집중적으로 하는 형태의 학습계획을 삼고 있다. 그러나, 문제풀이는 기본서 집중회독시에 어느 한 테마의 학습이 끝나면 바로바로 푸는 형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각자 적어도 기출문제 만큼은 테마 학습 이후 바로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는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강사의 강의를 듣고 간단한 복습을 거친 후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학습 방법이 수험가의 정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강의주안점

1. 각 제도의 개괄적 설명을 통해 제도의 소개를 한 후 집중적인 수험학습에 들어간다.
2. 집중적 수험학습에서는 세부적인 해결을 하며, 이 과정에서 적어도 역대 기출지점에 대한 교과서 정리를 병행한다.
3. 필요하다면 역대 기출문제 중 주요지점은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본다.
4. 철저한 수험용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보다는 시험에 바로 대비될 수 있도록 세련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6. 민법총칙

▶ 출제경향

세무사 민법총칙은 출제범위가 매우 좁은 편이기 때문에 매년 어느 하나의 단원에만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 수험전략 및 강의주안점

1. 민법총칙의 법학에서의 위치

- 모든 법학의 꽃은 민법에 있다 이야기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꽃을 꼽으라면 역시 민법총칙이다. 민법총칙은 결국 모든 법학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민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총론, 채권법 각론, 친족법 및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채권법은 주로 사인 사이의 약속 즉 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한 법이며, 물권법은 그에 의하여 물건에 관한 각종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에 관한 법이다. 친족법은 혼인, 입양 등과 같은 가족질서를 형성하는 방법에 관한 법이며, 상속법은 말 그대로 상속에 관한 제문제를 다루는 법이다.
- 민법총칙은 이러한 채권법, 물권법, 친족법, 상속법의 각 행위들에 관한 공통적 속성을 다루는 법이라 할 수 있다.

2. 민법총칙은 어려운가?

※ 민법총칙에 관한 세무사 수험가의 잘못된 소문

- 세무사 수험가에서는 민법총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모든 분과, 채권법, 물권법, 친족상속법을 다 알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문이 퍼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민법총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낭설일 뿐이다.
- 물론, 민법을 모두 아는 사람이라면 민법총칙은 아예 따로이 공부할 필요마저 없을 수 있으나, 세무사 수험가로서의 민법총칙은 그저 법조문과 핵심 판례 정도만 출제될 수밖에 없다.
- 출제자는 민법총칙을 출제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다른 민법의 분과를 잘 몰라도 공부할 수 있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실제 가출문제도 그렇게 출제되고 있다.

- 민법총칙은 수험준비하기가 상당히 쉽다. 비교하자면 회사법보다 훨씬 쉬운 법이다. 아니 행정쟁송법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 선택과목 중 가장 쉬운 법이라 볼 수 있다.

- 회사법은 거의 500여 조문(실제 문장으로는 800여문 이상)이상으로 구성된 반면 민법총칙은 184조로 구성되어 있다. 즉, 법조문의 양이 사실 회사법에 1/4에 상응한다. 결국 조문만 출제 된다고 하여도 회사법 준비가 민법총칙에 비하여 시간과 노력이 적어도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 수험효율면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행정쟁송법은 사실 소송법 및 절차법 영역과 실체법으로서의 행정법 영역을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수험 막판에 갈수록 별도의 정리 및 암기시간의 양은 늘어난다. 이점은 회사법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회사법은 더욱 심하다. 회사법은 법조문의 양도 그러하거나와 2014년 시험에서 보았듯이 출제자가 약간의 욕심을 부린다면 점수가 하락하는 폭이 상당히 크다. 시험 직전일수록 더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아지며, 수험불안도 심해지는 속성을 가지는 것이 회사법이다.

- 반면에 민법총칙은 처음 공부할 때에는 약간의 생소한 용어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수험이 임박하여 올수록 공부할 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축약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쉽게 시작이 되나 막판에 괴로운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에 약간 어려우나 막판에는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이 여유로운 과목을 선택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시험을 준비하는 누구라도 결국 나올 선택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3. 민법총칙의 공부방법

- 민법총칙을 학원에서 기본형태로 두 번 정도의 수강이 이루어지면 민법총칙은 그 자체로 수험준비는 끝나게 된다. 별도의 암기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

- 항상 강조하거나와 그 이외에는 객관식 풀이를 통하여 실제의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수험준비는 모두 끝난 셈이 된다. 여러분들은 세무사의 기타 주요과목들만을 공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타 주요 기출거점지점은 수업시간에 해결하여 나가기로 한다.

- 기타 주요 기출거점지점은 수업시간에 해결하여 나가기로 한다.

구분 \ 연도	11	12	13	14	15	16
민법의 의의						
민법의 법원	○	○	○	○	○	1
민법의 기본원리			○			
민법의 적용범위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	1
권리의 종류			○	○		
권리의 충돌과 경합						
신의성실의 원칙	○	○	○		○	
자연인의 권리능력	◎	○	○	○	○	1
의사능력	○			○		
행위능력과 미성년자		○	○	○	○	2
기타 제한능력자	◎			○	○	2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		○		
주소	○		○		○	
부재			○	◎	○	1
실종	○	○			○	1
법인의 설립①		○	◎		○	1
법인의 설립② - 재단법인			○	○		3
법인의 권리능력			○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		○	1
이사		◎			◎	1
감사						
사원총회						1
법인의 주소						
법인의 해산, 청산	○	○		○		
법인의 감독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	○	○	◎	◎	1
물건	◎	○	○	○		1
부동산과 동산		○				
주물과 종물		○	○	○	○	1

구분 \ 연도	11	12	13	14	15	16
원물과 과실					0	1
법률행위		◎				2
법률행위의 해석	0					
강행규정		0				
반사회행위	◎	0	◎0	0	0	2
불공정법률행위	0	0	0	0	0	1
비진의 의사표시	0	0		0	◎	
통정허위표시	0			0	0	1
착오	0	0	◎	0	0	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0	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0	0				1
대리	◎	◎	0	◎	◎	4
복대리	0	0	0	0	0	1
무권대리	0	0	◎	0	0	
표현대리	◎	0	0	0◎	◎	1
의사표시의 무효				0	◎	1
유동적 무효			0	0		
의사표시의 취소	0	0	0	◎	0	
조건과 기한	0	0	◎	0	◎	2
기간	0	0	0	0	0	1
소멸시효	◎	◎	◎	◎	◎	2
시효의 중단	0	0		0		1
시효의 정지			0			
제척기간	0		0		0	

7. 행정소송법

▶ 수험전략 및 강의주안점

1.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 행정법은 행정소송법 등을 포함한 방대한 분과입니다. 그리고 행정법 자체는 많은 행정관계 법령에 관한 기본적인 해석작업을 포함하여 상당히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게다가 ‘행정법’이라는 단일 법령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더욱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 하지만, 행정소송법은 행정법이라는 방대한 분과 중의 일부에 불과하며, 법조수가 46조에 불과하므로 모든 행정법을 알지는 못하여도 충분히 수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쉽게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행정소송법은 어려운가?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행정소송법은 수험으로는 해볼 만 한 과목입니다. 즉, 아주 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선택과목에 비하여 적은 분량이라는 점, 어려운 부분이 명확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나마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은 사실 소송법 및 절차법 영역과 실체법으로서의 행정법 영역을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수험 막판에 갈수록 별도의 정리 및 암기 시간의 양이 어느 정도는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는 있지만, 암기의 양적인 면에서 볼 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 행정소송법의 공부방법

• 행정소송법은 처음 공부할 때에는 아주 기본적인 소송의 구조만 확인하는 것을 권하고, 이후 집중적으로 원고적격과 처분성 위주의 판례학습을 할 것을 권합니다.

•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하여 다지기를 한 후 계속하여 반복 암기만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득점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특히, 세무사 수험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국세징수절차라는 부분을 항상 같이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소정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 기타 주요 기출거점지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행정소송의 의의+종류	1		1	1	1	1	1	1			1	1
행정소송의 유형			1						2	1	1	
행정소송의 한계			1	1	2	1	1	1		1	1	
행정소송의 준용규정								1		1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서의 처분 등의 효력				1		1						
취소소송의 소송물		1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이송	2	2	2	1	3	2	3	2	1	2	3	1
당사자 일반												
원고적격	1	2	4	1	1	1	1	3	3	2	1	2
협회의소익	2	1	1	2	1	1	1	1	1	2	1	1
피고적격	2	2	1	1	1	1	2	1	2	1	1	1
피고경정	1		1			1				1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1	2	1	1	1	1	2	1	3	1	1	1
처분	2	3	4	3	3	3	4	3		3	3	5
재결		1	1	1	1		1		2	1	1	
소송요건 일반	1					1	1				1	1
제소기간	1	1	1	1	1		1	1	1	1	1	1
행정심판	2		2	1	1	3	1	1	2	1	3	1
소의 변경	1	1	1	2	1	2	1	2	5	1	2	2
가구제	3	4	2	2	3	3	3	5	2	2	1	2
심리의 범위	1	3	2	3	2	2	2	1	1	3	2	1
심리의 일반원칙												
직권심리주의-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	1	1	2	2	2	2	2	1	1	1	2

구분 \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취소소송의 판결- 일반+사정판결	1	1	1	2	1	2	2	1	3	3	3	3
취소판결의 효력-① 자박력												
취소판결의 효력-② 확정력	2	1	2	2	2	2	2		1	1	1	1
취소판결의 효력-③ 기속력	1	1	1				1	3	1	1		2
취소판결의 효력-④ 간접강제									1	1	1	1
취소판결의 효력-⑤ 형성력+집행력		1	1	2	1	1	1	1	1	1		
취소판결의 효력-⑥ 재처분의무	1			1								
취소소송의 종료		1					1					
취소소송의 불복- 일반+재심			1			2	1	1		1		
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공고		1				1					1	
소송비용		1										
무효 등 확인의 소	3	1		2	1	2	4	2	2	2	2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4	2	2	1	2	1	1	1	1	1	2
당사자소송	2	1	1	1	3	3	3	3	3	1	4	2
객관적 소송	2		2	2	2	1	1	1	1	1	2	1

2 세무사 2차 시험

세무사 2차 과목 공부시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 3가지를 들고 싶다.

1. 너무 세세한 것에는 비중을 낮추어야 머리가 가벼워진다.

2. 세법학은 모의고사 등을 미리미리 시작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빨리 점검하고 수정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신속히 찾아내야 한다.

3. 절대 동차기회를 놓치지 마라.

세무사 2차 시험과목

1.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2. 회계학 2부
3. 세법학 1부
4. 세법학 2부

첫째, 2차시험은 1차시험과는 달리 상대평가이고, 동차를 노릴 경우 시험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하여 머릿속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수험생은 극히 소수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세세한 부분은 시험장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적을 뿐 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마지막 2주정도 동안에 머릿속에 모두 넣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워 오히려 이 때문에 필수적이고 비중이 높은 부분까지 망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2차준비 기간동안 이 부분에 대한 무리한 욕심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회계학1,2부는 계산이므로 반복학습과 숙달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세법학은 서술이므로 자신에 맞는 답안작성 요령을 찾는 게 핵심인데 여기에는 모의고사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요령을 찾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기출문제나 기존의 학원 모의고사문제 등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모범답안 등을 구해서 빨리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모의고사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서 교정해 나가지 않으면 실제 시험 전까지 합격에 대한 기대감 한번 품어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예생이 아니라면 짧은 2차 준비기간이 부담스러워 사실상 마음속으로 이미 다음해를 목표로 하여 심도없이 2차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유예와 동차는 일장일단이라고 생각된다. 동차생은 1차시험 본지가 얼마 안되어서 실전감각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깊이 측면에서는 유예생보다는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2차 시험은 여차피 상대적인 게임이고 모든 부분을 모두 커버하는 수험생은 극히 일부이고, 사실상 동차생과 유예생중 누가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최대한 계획을 세워 승부를 내야한다.

- 본원 황장원세무사 합격수기 中



1. 회계학 1부 - 재무회계

▶ 출제경향

세무사 2차시험의 재무회계 과목은 회계학 1부 100점 중에 60점 배점으로 출제됩니다. 최근 6년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자산회계와 부채회계에서 출제되는 점수가 전체의 2/3정도이며 나머지는 특수회계부분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IFRS가 도입된 2010년 이후에는 자산과 부채가 전체에서 50%정도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특수회계 부분이 나머지 50%정도 출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자산과 부채는 기본적으로 1문제는 출제되며 나머지는 자산과 부채에서 출제될 수도 있고 특수회계 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출제되는 범위만으로 본다면 1차시험보다 출제되는 영역은 훨씬 좁고 유형자산 등의 부분은 자주 출제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각 영역별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재고자산			30점			
유형자산			30점			
차입원가 자본화		30점				
무형자산					30점	
금융부채(사채)				15점		30점
총당부채	15점					
금융자산				15점	30점	
복합금융상품						
리스회계		30점				
수익인식(고객충성제도)	15점			30점		
관계기업투자	30점					
환율변동효과						
주당이익						
법인세회계						30점

▶ 수험전략

2차 재무회계 시험은 다른 과목보다 고득점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1차 시험보다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고 출제되는 범위는 오히려 좁아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1차부터 공부를 해 왔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첫째, 문제풀이의 “정확성”입니다.

1차 시험과는 달리 2차 시험은 문제풀이의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 때보다 시간적 여유는 더 있기 때문에 빨리 풀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정답을 맞춰야 하므로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부분점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정답을 올바르게 맞춰서 공부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매일매일 꾸준히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재무회계 과목은 논리적인 과목이라서 이 과목에서 요구하는 있는 논리대로 접근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하루라도 거르지 마시고 하루에 두 세문제라도 직접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 과목은 휘발성이 높은 과목이므로 단기간에 집중한다고 해도 재무회계 실력은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풀어가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스타일에 적응하고 일정한 단계에 오르면 그 때부터 점수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관식 문제풀이라고 해서 기본내용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기본 내용과 기준서상의 내용을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읽고 학습하셔야 합니다.

2차 시험이 문제풀이 위주로 하다보면 문제만 푸는데 열중하는데 문제를 잘 풀 어낼 수 있는 논리적인 바탕은 기본 내용의 이행과 기업회계기준서의 숙지입니다. 해당 내용의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반드시 기본내용과 평소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은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관련된 문제풀이를 진행하셔야 하며 문제풀이과정이 틀리는 부분은 또다시 해당 내용에 표시하고 본인이 어떠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공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넷째, 문제를 풀면서 절대 답안을 먼저 보지 않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본이론 수업중에도 저는 기출문제 등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문제가 안 풀리면 조금 더 생각하기 보다 그냥 답을 먼저 보시는 경우가 많 습니다. 그러나 주관식 시험은 절대 눈으로 답을 먼저 보면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못 풀더라도 이리저리 최소한 몇 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답을 확인하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또는 계산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자주 틀리는지 확인하시는 공부습관을 평소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 강의주안점

첫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재무회계의 숲을 보는 시각을 갖추 수 있도록 이 해위주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재무회계 2차 시험은 주관식 문제의 특성상 문제가 객관식보다 훨씬 긴 문제가 출제됩니다. 처음 본 문제가 어떤 답안을 요구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지엽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전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떠한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놓칠 수가 있으므로 본 강의는 문제를 크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추 수 있는 재무회계 개념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둘째, 같은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전달합니다.

재무회계의 문제풀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험생들이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수업시간을 통해서 전수합니다. 10년 이상의 수험강의 경험을 살려서 수험생들의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야 할 문제 풀이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전해 드립니다.

셋째, 수업시간에는 되도록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본문의 어떤 내용과 연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설명만 단순한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당 문제가 본문의 어떤 내용을 문제화 시켰고 왜 자주 출제되고 있으며 중요한지에 대해서 문제와 내용을 비교하면서 항상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재무회계 각 부분을 연관하여 학습 하면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앞에서 배운 어떤 내용과 관련된 것인지 항상 상호 비교 및 검토함으로써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재무회계는 한 두 번 본다고 해서 실력이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투입해서 단계에 오를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과 뒤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필요한 재무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을 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회계학 1부 -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는 회계학 1부 100점 중에서 40점을 차지하는 과목으로써 보통 20점씩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차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시험에서도 원가관리회계는 고득점을 하여야 하는 과목으로서 40점 중에서 30점 이상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회계학 1부 100점 중에서 60점을 차지하는 재무회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점수입니다.

▶ 출제경향

내 용	출제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원가관리회계 일반 및 원가흐름										
개별원가계산										
활동기준원가계산	○	○		△					○(△)	
종합원가계산				○					△	
결합원가계산							○(△)			
변동원가계산								○	○(△)	
원가추정										
CVP분석	○		○		○		△	○		
관련원가분석			○(△)				○(△),△		△	
자본예산										
종합예산								△	△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표준원가계산					○	○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			
대체가격결정		○				○				
기타이론(신이론)			△	○(△)					△	

(△ : 문제의 일부분으로 나온 경우 (2014년의 경우 한 문제에 여러 가지 주제를 물어보고 있음))

▶ 수험전략

최근 2차 시험 문제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한 문제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VP분석을 물어보면서 동시에 특별주문을 수락할 지 여부를 물어본다든지, ABC를 물어보면서 목표원가계산을 물어보는 등 연관된 주제를 같이 물어보는 것입

니다. 이렇게 최근 시험은 20점짜리 1문제에서 한 가지 주제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각 단원별로 단편적인 이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원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의 사항들을 감안하면서 공부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2차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기본에 충실한 것이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2차 공부할 때에는 2차 나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위주로 공부하고, 쉬운 문제는 눈으로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실제 시험과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문제와 과거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하면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할수록 고득점이 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과거 2차시험 기출문제는 최대한 확보해서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는 것이 좋고, 이러한 기출문제들은 반드시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오는 자료들이 모두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출제자의 출제의도와 관련된 자료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풀어보는 것도 2차시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동차생의 경우에는 모든 단원을 다 공부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2차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다 커버하려고 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활동기준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CVP분석, 관련원가분석, 표준원가계산, 신이론 중 목표원가계산과 같은 부분은 2차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유예생의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마스터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주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집중 공략한 후에 시간이 되면 변동원가계산이나, 대체가격결정, 개별원가계산/정상원가계산,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같은 부분까지 공부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원가관리회계는 이론 및 암기보다는 계산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직접 손으로 풀어가는 공부방법이 필수적입니다.

눈으로 해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며,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를 직접 손으로 풀어가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각 단원별로 이론적 배경이나 장단점 등을 숙지 해놓으면 금상첨화겠지요.

다섯째, 반드시 2차 시험 답안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마다 시간을 재보면서 푸는 것이 실제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답안지에 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원 등에서 판매하는 2차 시험용 답안지를 구입해서 실제 시험 답안 작성하듯이 연습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한 문제 풀 때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체크해 보면서 풀어보면 실제 시험에서 시간 조절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가관리회계는 중급회계나 세법학 보다는 투입시간 대비 산출이 큰 과목이라 판단되며, 적은 시간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들에 유념하면서 전략적으로 적절한 공부량만 투입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강의주안점

1. 기본을 충실히 하고 전체적인 틀을 잡아드리기 위해 내용정리 및 다양한 문제 풀이를 해 드립니다.
2. 계산문제가 아닌 기술형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 단원별로 이론적인 요약정리를 해드립니다.
3. 기술문제와 원서에 나오는 문제 중 교수님들이나 출제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발췌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해 드립니다.
4. 각 문제마다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5.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회계학 2부 - 세무회계

▶ 출제경향

법인세 50%, 소득세 30%, 부가가치세 20%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고 상속 증여세도 출제범위이긴 하나 최근 상속증여세는 출제되지 아니하고 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큰 차이점은 모두 주관식이고 이론문제 보다는 문제풀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법인세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1차에 비해서 법인세의 비중이 크므로 법인세에 대한 대비를 집중해야 한다. 세무회계는 2차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여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의 경우에는 과락률이 75%(2014), 70%(2015), 75%(2016)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세 무 회 계	법 인 세	11년	1. 감가상각비, 할부판매, 도급공사, 대손충당금,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 일시 상각충당금, 접대비, 퇴직연금충당금 2. 합병
		12년	1. 재고자산, 주식관련,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부당행위계산부인, 주식보상 비용 2. 세액공제, 최저한세
		13년	1. 유가증권, 출자전환, 의제배당,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자산계상 접대비,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재고자산평가 2. 부당행위계산부인 사택제공, 고가매입, 인정이자
		14년	1.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 접대비, 수입배당금,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자산부채평가, 감가상각비 2. 중간예납세액, 추정대상세액
		15년	1. 세금과 공과금, 출자전환, 의제배당, 인건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고가매입, 지급이자 2. 청산소득, 최저한세
		16년	1. 업무용승용차, 퇴직급여, 접대비, 보험차익, 대손금, 기부금 2. 외국납부세액공제, 지급이자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소 득 세	11년	1.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소득공제
		12년	1. 금융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13년	1.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14년	1. 금융소득, 공동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15년	1. 금융소득, 동업기업과세특례, 양도소득, 성실사업자
		16년	1.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세 무 회 계	부 가 가 치 세	11년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납부할세액, 과세표준, 경영사업자, 과세유형변환
		12년	1. 매출세액, 매입세액
		13년	1. 매출세액, 매입세액
		14년	1.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재계산, 차가감납부세액
		15년	1. 부동산임대소득, 일괄공급, 매출세액신고서작성, 매입세액신고서작성, 매입세액공제신고서작성
		16년	1. 매출세액, 매입세액 신고서 작성, 폐업 시 잔존재화

▶ 수험전략

1차시험이 끝나자마자 결과 확인 후 바로 2차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1차준비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론은 정리가 되었겠지만 1차수준의 정리이므로 다시 한번 2차수준의 이론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할 것이고, 객관식 문제 풀이에 익숙하다 보니, 주관식 답안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 빠르게 답안 작성을 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다음은 수험전략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단권화하고 회독수(3회독 이상)를 늘리자.

자신이 선택한 세무회계책을 여러번 회독수를 늘려서 자기만의 풀이 방법과 개념정리 하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이라고 하겠고 중간중간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 학습 내용 파악 및 답안작성 훈련을 해야한다. 실제로 세무회계를 공부하면서 다른 책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책에는 내책에 없는 문제가 있을 듯 해 보이고, 다른 책에 있는 문제가 출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들겠지만 모든 책은 거의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책만 기출문제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므로 어느 교재이든 상관없이 회독수를 늘려 반복해야지 고득점이 가능하다.

둘째, 답안 작성 연습을 충분히 하자.

2차 시험을 주관식 시험이므로 객관식에서 공부하듯이 답안을 유추할 수도 없고 보기에 답이 없으면 틀렸다는 피드백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감있게 풀고 답안 작성의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에서 불필요하게 답안 작성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효율적인 답안 작성을 통해서 시간도 줄이고 문제 풀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연습할때부터 2차 답안지에 답안 작성을 훈련해야 한다. 최근 경향을 보면 풀이과정도 중요할 수 있지만 문제가 많고 문제에 답안양식을 주는 경우에는 답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경우 풀이과정을 줄여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넓은 시야로 접근하자.

2차 공부를 할 때에는 객관식 때처럼 시간의 틀 안에서 해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넉넉한 시간내에서 해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넓게 생각하고,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법인세 안에서도 단편적인 부분만을 공부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여러 주제가 결합된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하나의 테마가 아닌 여러 테마를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강의주안점

종합반에서는 아래와 같은 강의주안점을 가지고 집중 공략한다.

첫째, 출제경향에 맞춰 공부방향을 공략한다.

출제경향을 보면 법인세법은 각론형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종합문제 스타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전체 계산구조의 틀 확립 후에 각 과정보로 학습해야 할 세무적인 내용들을 포함시키면서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회계학 2부에서 세무회계를 철저하게 학습하게 되면 세법학 1, 2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다.

둘째, 문제풀이 순서를 통해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공략해라.

회계학 2부의 출제형식은 문제1에서 법인세 각론이 7~8문항이 출제된다. 문제2에서는 법인세 특수분야 부분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문제3에서는 소득세의 종합문제 유형, 문제4에서는 부가가치세 종합문제 유형이 출제된다. 대부분 수험생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문제3), 부가가치세법(문제4), 법인세법(문제1,2) 순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법인세법(문제1), 소득세법(문제3), 부가가치세법(문제4), 법인세법(문제2) 순서로 작성하기를 추천한다. 그러나 이것도 최근 기출형태를 보면 달라질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문제를 풀다가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보는 스타일의 문제를 뒤로 미루고 푸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것이다.

셋째,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쉬운 문제를 자신있게 풀수 있도록 하자.

자신 있고 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자신 없고 어려운 부분은 모두 다루지 말고 선택적으로 접근해서 2차 시험 직 전까지 부분점수 확보 전략으로 가야 한다. 2차 시험은 문제의 크기는 클 수 있어도 부분점수로 세분화 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문항에서 골고루 점수를 확보는 방법으로 접근 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의 경우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집중화하여 여러 문항에서 각 문항 내 부분점수를 노려 전체 점수를 올리는 것이 효율적이고,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특수파트를 제외하고는 전체내용을 고르게 준비하자.



4. 세법학 1부, 2부

I. 세법학 1부

▶ 출제경향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11년	법인격 없는 단체
		12년	경정청구
		13년	납세자 성실성 추정
		14년	1. 세무조사대상자 선정기준 2.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 3. 납세자보호위원회 역할 4. 세무조사 시 미제출한 자료의 입금책임의 범위
		15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6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법인세법	11년	1. 불공정감차시 세무상 효과 2.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
		12년	출자전환
		13년	연결납세제도
		14년	1. 유가증권의 고가양수 2. 유가증권의 저가양수 3. 세무상 결손금
		15년	1. 양도소득 개년, 1세대 1주택비과세 취지, 겸용주택 과세 2.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6년	1.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근거와 범위 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가치금 손금불산입 요건
	소득세법	11년	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 공동사업 합산과세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12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부부) 1. 혼인관계 유지시 2. 이혼한 상태인 경우 3. 사망한 경우
		13년	1. 소득금액 추계방법의 합리성 기준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확정절차와 성격 3. 수입금액 추계시 필요경비의 추계여부 4. 추계시 이월결손금, 총당금 및 준비금의 처리방법

세 법 학 1 부	소득세법	14년	1. 이연퇴직소득 요건 2.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3.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 중 연금외수령으로 보는 특례
		15년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2. 출자전환 채무면제액
		16년	1.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 기타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 2.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양도대금 채권을 양도 시 소득의 종류, 과세방법 및 수입시기
	상속세법	11년	고가,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증여
		12년	결손법인과 거래에 대한 증여세
		13년	상속공제 중 배우자공제
		14년	1.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서 빼는 금액, 상속공제, 신고절차 2.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공제, 신고절차 3. 증여추정
		15년	1. 명의신탁증여의제 2. 증여재산의 반환
		16년	1. 동거주택의 상속공제의의 및 요건 2. 상속공제적용 한도

▶ 수험전략

① 국제기본법(20점)

보통 판례 등을 바탕으로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사례형 문 제에 답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의 기본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논술과목의 특성상 정확 한 답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범 답안보다는 본인이 재구성한 논리전개 답안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법인세법(30점)

계산형은 회계학 2부에서 물으므로 세법학에서는 계산형태 방식이 아닌 특수이론 주제를 심도 있게 묻는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③ 소득세법(30점)

계산형은 회계학 2부에서 물으므로 세법학에서는 계산형태 방식이 아닌 특수이론 주제를 심도 있게 묻는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20점)

나머지 세목과는 달리 1차 시험에서 접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과락이 나오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1차시험 후 바로 학습이 되어야 하며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II. 세법학 2부

▶ 출제경향

세 법 학 2 부	부 가 가 치 세 법	11년	1. 납세의무자 2.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4. 사업자등록 : 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
		12년	1.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의 개념 2.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요건과 내용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3.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제거 또는 완화제도
		13년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취지, 안분계산방법, 안분계산의 생략 2. 공통사용재화의 공급 : 취지, 안분계산방법, 안분계산 생략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
		14년	1. 전단계거래공제법 vs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장단점 2. 매입세액공제여부
		15년	1. 전자적 용역의 공급 과세특례
		16년	1. 용역의 무상공급 시 과세여부 2.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3. 채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유 4. 간주공급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정하는 이유
	개 별 소 비 세 법	11년	귀금속제품의 포괄승계 :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비과세, 신고절차, 권리의무사항승계
		12년	1. 수출면세의 취지 2. 수출면세 절차 3. 수출면세 사후관리
		13년	1. 면세물품의 사후관리시 물품의 가격계산 2.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14년	1.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2. 환급사유 및 방법
		15년	1.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과세시기 및 신고, 납부절차 2. 미납세반출
		16년	1. 장애인용 승용차 면세특례 :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 승용 자동차의 범위, 면세특례 적용절차 2.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자동차 사후관리
	지 방 세 법	10년	1. 취득세 비과세 2. 취득세 경감
		11년	1. 증여의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존재여부 2. 부담부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
		12년	재산세 납세의무자

세 법 학 2 부	지 방 세 법	13년	1. 증자등기에대한 등록세 중과 2. 등록면허세 중과
		14년	1.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취득세 2.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재산세
		15년	1. 과점주주 요건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16	1. 신탁재산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 특 법	10년	채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1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2년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2. 증여받은 농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여부
		13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4년	1. 근로장려세제 도입배경, 기대효과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15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6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

▶ 수험전략

① 부가가치세법(35점)

사례형태가 아닌 이론 서술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1차 시험을 착실히 준비하신 분도 쓰실 수 있도록 출제가 되고 있어 준비에 큰 어려움이 없는 세목입니다.

② 개별소비세법(20점)

사례형태가 아닌 이론 서술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개별소비세 조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습분량은 많지 않으나 구석구석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암기가 필요한 세목입니다. 1차 시험에는 없는 세목이므로 1차 시험이 끝난 후 바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③ 지방세법(25점)

사례형태로 출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역시 1차 시험에는 없는 세목이므로 1차 시험이 끝난 후 바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세목입니다.

④ 조세특례제한법(20점)

사례형태가 아닌 이론 서술형태로 출제가 되는 데 암기력을 많이 요구하는 세목입니다.

▶ 강의주안점

1. 이론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세목은 논제를 압축해 집중해서 정리하고,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고 그 후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요약서브를 제공해 드립니다.
2. 사례형태로 출제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때는 문제출제의도와 상관없이 장황하게 논술하는 것을 피하고 요점을 정확히 파악해 서술해야 하므로 쟁점파악과 결론 도출에 주안점을 두고 출제가능한 사례 등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3. 효과적인 수험준비가 될 수 있도록 1차 시험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을 먼저 진행하고, 1차 과목에 해당하는 세목은 나중에 진행합니다.
4. 실제로 본인이 직접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과락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문제(예상 또는 기출)를 따로 나눠 드려 충분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